

천년고찰 묵묵히 지켜온 나무 이야기

절집나무
글 고규홍 | 사진 김성철 | 들녘 | 1만8천원

한국의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한권을 맡아 지켜주는 전통문화의 증거물들이다. 각 절집마다 오래된 이야기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이 사람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살이를 지켜본 나무가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남긴 한 줄의 글귀보다는 더 담백하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나무 줄기 속에 깊숙이 배어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절이 세워지기 전 또는 세워지던 때부터 절 마당에서 자라온 절집 나무는 그간의 역사를 속내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전히 생동하는 '살아있는 역사'다.

<절집나무>는 대표적인 천년 고찰 33곳 나무들의 생태와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와 전설 등 나무에 얽힌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땅의 큰나무>의 저자 고규홍 씨와 사진가 김성철 씨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다.

책을 쓰기 위해 이들이 직접 돌아본 절집만 해도 모두 170여 곳, 사계절 내내 1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것은 전국을 다섯 바퀴 이상 순회한 것과 맞먹는 수치로, 그야말로 '발로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170여 곳 중 33곳을 추려내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았던 일 중 하나. 나무에 대한 온갖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솜씨 있게 버무려낸 저자들의 노고가 돋보인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절집나무 백과사전이다. 절집나무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 나무와 사찰에 얽혀 있는 전설과 역사, 나무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위치, 그리고 생물학적 생태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일화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면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화순 쌍봉사 극락전 앞에는 단풍나무 두 그루가 딱하니 버티고 있다. 나무 즐기기에 심한 그늘음이 남아있는데 바로 쌍봉사가 화마에 휩싸였을 때 몸을 불사르며 극락전(서방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지켜낸 기특한 나무이다. 이 나무 덕분에 아미타불은 목숨(을)을 구했다. 그러나 단풍나무에 서려 있는 불성(佛性)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신의 성(性)을 바꾸면서까지 사찰을 지킨 전등사 은행나무도 흥미거리다. 조선흥기 조성은 불교탄압의 구실로 전등사 은행나무 열매의 공출량을 정했다. 당시 전등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금'이었다. 이를 못 견디신님들은 '차라리 나무에서 수 나무로 바뀌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대로 암나무는 수나무로 성전환했고 공출량을 정할 수 없었던 조성은 더 이상의 탄압을 포기했다.

하나 더 소개한다. 정선 정암사에는 오래된 주목이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신

덕여왕 7년(638년)에 세운 절집이다. 그런데 자장율사는 자신의 주장자를 신포로 꽂았고 이것이 주목이 됐다. 하지만 이 주목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렸다. 그런데 최근들어 꺾일만 남은 나무 안쪽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장율사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분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인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이밖에도 저자들이 발품을 팔아 꾸민 이 책에는 부처님의 은력으로 숲 전체에 퍼진 오대산 상원사 전나무, 백범 김구의 나라사랑을 담은 공주 마곡사 향나무, 해마다 막걸리 열두말을 먹고 원기를 찾는 정도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 정조 임금의 부모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지은 용주사에 손수 심은 회양목, 천하의 간신배인 유정신이 몽고에서 몰래 들여와 심은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등 사랍과 어울려 사는 절집나무들의 사연이 담겨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그동안 사찰에 가서 경내에 있는 나무들에 등한시 했다면 이 책은 더욱 읽는 의미가 있다. 사찰의 역사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짚게 묻어 있는 것이니 말이다. 이 책이 사찰 여행 가이드 북으로도 손색이 없는 포화상태의 이유는 책 말미에 사찰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법당 화재 막아낸 쌍봉사 단풍나무
암수 바꾼 전등사 은행나무 등
국내사찰 33곳 가려뽑아
일화·전설·생태 흥미롭게 엮어**



3분력-3분으로 도전하는 자신감 있는 인생
다카이 노부오 지음 | 은미경 옮김 | 명진출판 | 9천5백원

<3분력>은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3분력'이란 3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을 전달하고, 3분 안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뜻한다. 즉 3분 스피치 요령을 가르쳐 준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일 처리 과정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단 3분 안에 그 많은 기술을 활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이끌어내느냐는 것이다. 저자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 예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도 30초 내외고 광고 카피도 한 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든다. 실제로 회사 면접도 3분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이유는 사람의 집중력이란 최대 3분을 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분안에 상대방 마음 사로잡기

쉽고 정확하게 자신감 표현하는 기술 담겨

실제로 요즘 신입사원들 면접을 치르다보면 첫 인상이나 외모는 훌륭한데 의외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대로 제시 못해 낙방의 고배를 마시는 지원자들을 많이 봤다. 아마도 이 책 한 권 정도 정독해서 읽으면 어느 정도는 요령을 터득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는 감히 3분력만 '자신감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다. 3분력만 단순히 '빨리, 짧게 말하라'의 차원이 아니다. 요즘처럼 복잡 다양한 시대에 쉽고 정확하게, 핵심을 치는 기술은 그 어떤 능력보다 환영받는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함이 미덕인 시대다. 그런 사실을 알고, 3분을 자신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30년도 기본 좋게 보낼 수 있다.'고 집필한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우선 이 책의 1부에서는 왜 현대 사회에서 상대에게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최상의 키워드로 3분력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스케줄은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짜여져 있고, 이렇듯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분력'이라는 것.

2부에는 도입, 접근, 반전, 호응, 공감, 칭찬, 반론 등 3분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이 소개해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3분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 3부에서는 이처럼 대화를 나눌 때 실수하기 쉬운 점과 잘못된 언어습관을 바로 잡는 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3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즉 메모하는 습관들이기, 요약력과 유머 감각 키우기, 경청하는 자세 익히기 등 여러 가지 훈련법 등을 담았다.

특히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않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 것' '시작은 느리게, 전개는 강하게' 등은 실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눈여겨 볼만하다.

■김정환 (두원테크 부장)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석주큰스님 글씨가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분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님들에게 보급됩니다.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영수도자기

KBS1TV 진용영호 고서희 김정우원(이)이며
이시대 최고의 사예가이시며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후원으로 장성을 다하여
씨주신 사영수 도자기, 7권(圖), 佛(佛), 山(山), 龍(龍)
사주신 사영수 도자기, 7권(圖), 佛(佛), 山(山), 龍(龍)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정진의 경정제인 고당스님의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액운을 막아주고
상스러운 기쁨을 발원시켜 받고 선경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자 발만 드립니다.)

특징

- 당대(當代) 제일의 필력과 필력을 가진 석주큰스님의 좋은 글씨를 널리 알리고 여러사람이 소장하여 보고즐길수 있도록 합니다.
-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덟장면을 알기 쉽고 친근한 그림으로 나타낸 팔상도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생활의 귀추가 되게 합니다.
- 흥남 아산시 영치읍 송곡리 200. 보문사 산하 보존복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KBS1TV 진용영호 김정우원(이)이며 이시대 최고의 한학자겸 사예가이신 매산(梅山)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 사영수도자기를 후원하여 출판하시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선서화의 대가이신 선필 고당(高堂)스님께서 직접 그린 선 달마도를 내놓으셨습니다.

팔상도8폭병풍 (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영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0,000~~ → 395,000원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보문복지원 대행 : (주)명성이앤씨
문의전화 : 02-424-9901